

# “우리가 베스트 멤버 ... 후배들이 당당하게 야구하자”



나주환

## KIA 임시주장 나주환 '위기탈출' 선언



산전수전 다 겪은 19년 차 나주환(37)이 위기탈출을 위해 후배들에게 “우리는 베스트 멤버”라고 외친다.

나주환은 올 시즌 그라운드보다 밖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허리 부상 여파로 아직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현재 팀의 최고참, 그리고 임시주장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

“최고참” 최형우가 망막 이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팀의 ‘말형’이 됐고, 나지환이 옆구리 근육 부상으로 이탈하자 윌리엄스 감독이 ‘임시주장’을 맡았다.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이 준비한 팀 상황, 승보다 많은 패가 쌓이면서 팀은 힘겨운 5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베테랑의 경험과 힘이다.

나주환은 “팀에 위치나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주전으로 나가는 것도 이상하다. 후배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서 감독님께서 임시주장이라는 중책을 주셨을 때 따로 생각한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맡게 하려고 애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주환은 팀의 고참이 된 지금도 그라운드 안팎에서 특유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임시주장’으로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강팀·좋은 팀은 분위기가 좌우

즐겁게 야구하면 에너지가 솟아

어차피 144경기의 장기 레이스

게임 저도 당당하게 내일을 준비해야

힘든 시기지만 우린 치고 나갈 힘 있다

그는 “어릴 때 좋은 성적 내면서 시합 많이 나가봤고 우승도 해봤는데 강팀이 되고 좋은 팀이 되는 조건을 보면 분위기가 좌우시킬 때가 많았다”며 “전염병처럼 누구 한 명이 즐겁게 하고 밝게 하면서 따라 하다 보면 전체 에너지가 솟아났다. 어릴 때 그런 것을 배웠고 나도 그런 성격이다 보니 밝은 면을 강조하게 된다”고 말했다.

나주환은 후배들에게 ‘당당함’도 주문한다.

나주환은 “후배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경기 나가는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까 못치고 오면, 포볼 주면, 예러하면 고개 숙이게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다. 어차피 삼진은 먹은 것이고, 예러는 범한 것이다. 우리는 144경기를 해야 한다”며 “후배들에게 기술적인 것보다는 ‘삼진을 먹던 예러를 하든 게임을 지든 당당하되, 내일 게임 잘 준비해서 이기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런 이

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상 후배들에게 하는 말은 지금 이 멤버가 ‘베스트’라는 것이다. 지완이, 형우 형은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게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지금 우리가 ‘베스트 멤버’이고 수건을 던질 게 아니면 한 경기 못하고 그런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팀 전력 이 4위권 정도라고 말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 힘든 시기지만 이것도 경험이다. 어린 선수들이 20-30경기 잘 버티면 분명히 부상 선수들 왔을 때 치고 나갈 힘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팀을 우선 생각하는 위치에 선 나주환. 개인적으로 2021시즌은 ‘1500경기’라는 목표를 이룬 특별한 해로도 기억에 남게 됐다. 나주환은 지난 9월 홈에서 열린 두산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8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서 KBO리그 통산 54번째 1500경기 주인공이 됐다.

나주환은 “꼭 1500경기를 하고 싶었다. 1군에서 1500경기는 게 12, 13년 계속 꾸준히 나가야 이룰 수 있다. 다른 선수들은 몇천 안타, 3할을 치고 했지만 나는 이 기록이 의미 있었다”며 “조급함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모든 경기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중요하지만 ‘안 하면 어때, 그만하면 됐잖아’ 이런 마음으로 바뀌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다. 작년엔 (부상으로) 마지막을 같이 못 했는데 올해는 후배들과 함께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비가 준 휴식 ... KIA, 연패 탈출 위해 대구 간다

상승세 삼성과 주말 3연전

윌리엄스 감독 “기본이 가장 중요”

비로 하루 쉬 KIA 타이거즈가 ‘조심’으로 승률 높이기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SSG 랜더스의 시즌 6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5연패 중인 광주는 대구로 장소를 옮겨 연패 탈출에 나서게 된다.

KIA에는 아쉬움 가득한 패배의 연속이다. 브룩스가 출격한 지난 13일 LG전을 시작으로 다시 브룩스가 나온 19일 경기까지 5패가 쌓였다. 앞선 4패는 선취점을 내기도 리드를 지키지 못한 역전

패였다.

19일에도 브룩스가 6.2이닝을 잘 막아줬지만, 불펜의 ‘불넷쇼’에 연패 탈출에 실패했고 브룩스의 올 시즌 승수는 ‘1’에 머물렀다.

5연패를 지켜본 윌리엄스 감독은 ‘조심’을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뭔가 잘 안 될 때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든 기본을 충실히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열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야구를 시작했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경쟁을 좋아하고, 승리의 일부가 된다는 생각으로 야구를 시작하고 좋아했을 것이다. 우리는 연패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팀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어찌 일어났든 문제는 오늘 다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

다.

선발의 짧은 이닝, 불펜의 제구 난조, 공격의 엇박자 그리고 벤치의 세밀한 전략도 아쉬웠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과정이다. 지난 연패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KIA는 주말 3연전에서 ‘연패 탈출’을 목표로 하게 된다.

현재 5연패, 삼성전 2연패, 주말 13연패가 쌓여있다. 비로 달콤한 휴식을 얻은 KIA ‘연패’를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취소된 SSG와의 경기는 6월 16일 더블헤더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꼴찌 탈출에 필요한 건 ‘득점’

제주전 슈팅 13개 무득점

23일 수원 삼성과 홈 경기

광주FC의 최하위 탈출에 필요한 것은 ‘득점’ 그리고 ‘승원’이다.

광주는 지난 19일 안방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1 17라운드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13개의 슈팅이 무위로 그치면서 승리를 얻지 못했지만 4연패에서 탈출해 5경기 만에 승점을 더했다.

연패를 끊은 광주는 23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삼성블루윙즈와 18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목표는 최하위 탈출을 위한 승리다. 제주와의 경기에서 광주는 불안했던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광주는 앞선 수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와의 베팅 끝 승부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종료 직전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연달아 2패를 기록했다.

“뒷심”에서 문제를 노출했던 광주는 5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하며 귀한 승점을 보냈다.

한희훈이 알렉스를 대신해 선발 출전해 투지 있는 수비를 선보이면서 이한도와 환상 호흡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승리가 절실한 광주에는 ‘득점’이 고민이다. 제주전에서 펠리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광주는 13개의 슈팅을 날리며 이 중 7개를 유효슈팅으로 남겼다. 하지만 위협적인 공세에도 끝내 골대를 가르지 못하면서 광주의 무승은 계속됐다. “딱한 실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언급했던 김호영 감독도 최하위 탈출을 위한 방안으로 “결국은 득점이다”며 ‘득점’을 언급했다.

김호영 감독은 “우리 팀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 슈팅 상황에서 선수들이 자

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충분히 상대를 무너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돌아온 임원상을 중심으로 해서 ‘풍암동 지단’ 김중우가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중우는 역시 부상에서 복귀해 2경기 연속 교체 출전으로 감각과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번엔 또 친정 수원을 삼성으로 경기를 하는 만큼 동기 부여도 된다. 김중우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로 광주의 공격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원’이다. 키피어 윤보상은 지난 제주전이 끝난 뒤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윤보상은 팬들, 특히 어린이 팬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선수다. 이날도 경기 전에 경기장을 찾은 어린이 팬에게 키피어 장갑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몇 차례 실점을 막는 슈퍼세이브를 선보였던 윤보상은 “지금 팀이 힘든 상황인데 못하면 욕을 할 수 있고, 잘하면 칭찬도 할 수 있는데 욕보다는 많은 칭찬과 응원해주시면 좋겠다”며 “제가 강등 싸움도 많이 해봤는데 안팎으로 문제가 있으면 좋지 않다. 팬들, 서포터즈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높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력이 약한 시민구단 광주에는 ‘12번째 선수’ 팬들이 무엇보다 든든한 힘이다.

광주가 이번에는 만나는 수원엔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3승 3무, 무패행진을 달리며 3위까지 올라섰다.

또 리그 2강인 전북현대와 울산현대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며 순위 싸움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광주가 분위기를 살려 홈팬들 앞에서 ‘난적’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렇게 운 없는 투수가 있나...”

텍사스 양현종, 양키스전 5.1이닝 2실점 ... 상대 투수 ‘노히트 노런’ 대기록에 패전 ‘명예’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빅리그 입성 후 가장 긴 이닝을 소화하고도 첫 패배를 당했다.

양현종은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1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4개를 내주고 2실점 했다. 삼진은 2개를 잡았다. 양현종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38로 변화가 없었다.

양현종은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0-2로 뒤진 6회초 마운드를 넘겼다.

텍사스는 2020년에 함께 뛰었던 ‘전 동료’ 코리 클루버에게 ‘노히트 노런’ 대기록을 헌납하며 0-2로 패했다. 양현종은 패전 투수가 됐다.

이날 클루버는 9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볼넷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개인 첫 노히트 노런이다.

양현종도 호투했다. 특히 이날 양현종은 병살타를 3개나 유도하는 등 탁월한 ‘쌍볼 유도 능력’을 과시했다.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양현종은 빅리그 입성 후 한 경기 최다인 5.1이닝(중전 4.1이닝)을 소화했다.

이날 양현종의 투구 수는 74개로 빅리그 입성 후 개인 최다(중전 72개)였다. 베이스볼서버트에 따르면 양현종은 지금까지 35개, 체인지업 21개, 슬라이더 16개, 커브 2개를 던졌다.

양현종이 마운드를 지키는 동안 양키스 타자들의 타구는 ‘내야’에 갇혔다. 외야로 날아간 타구는 단 4개뿐이었다.

양현종의 탁월한 땅볼 유도 능력은 양키스 타선의 병살타로 이어졌다.



20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대 뉴욕 양키스의 경기에서 텍사스의 양현종(33)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현종은 1회와 2회, 5회, 6회 총 네 차례 선두 타자에게 출루를 허용했다. 이 중 세 차례 무사 1루 위기는 병살 유도로 남겼다.

양현종은 아웃 카운트 2개가 부족해, 빅리그 개

인 첫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텍사스가 기대한 선발 투수 역할을 해냈다. /연합뉴스